

전남 일터에 청년이 없다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올 상반기 전남·목포·고흥·완도·보성·신안·장성 등 전남 7개 시군에서 취업자 3800명이 감소했다.

농업 비중이 높은 신안, 고흥, 해남은 8분기 연속 전국 고용률 10위권에 들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군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남 22개 시군 취업자는 98만7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반기(96만9900명)보다 1.8%(1만7300명) 증가했다.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는 9개 도 시(市) 77개와 군(郡) 77개, 7개 특광역시 구(區) 74개 등 총 228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4월19일부터 5월4일까지 이뤄졌다.

전남에서 취업자가 줄어든 지역은 해남(-1100명)과 목포(-700명), 고흥·완도(각 -500명), 보성·신안(각 -400명), 장성(-200명) 등 7개 시군이다.

취업자 비중 100명 중 10명도 안돼...보성 3.9% 최저

고령자 비중 절반 넘는 곳은 고흥·보성·곡성 등 15곳

농어업 비중 높은 신안 고용률 77.8% '상위권 유지'

신안(5400명↑)과 나주(3200명), 여수(3000명), 무안(2600명), 광양(2200명), 영암(1100명)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시군은 취업자가 늘었다.

신안은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 전국 3위에서 올 상반기에는 울릉군(83.7%)과 장수군(78.8%), 청양군(77.9%)에 이어 4위(77.8%)에 올랐다. 고흥(74.8%)은 7위, 해남(73.5%) 9위, 진도(73.5%) 10위에 올랐다. 신안, 고흥, 해남은 8분기 연속 전국 고용률 10위권에 포함되고 있다.

고용률이 전년보다 감소한 지역은 해남·무안(각 -0.8%포인트), 완도(-0.3%포인트), 담양(-0.1%

포인트) 등 4개 군이었다.

취업자 비중을 연령대로 보면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비중은 고흥이 66.7%로 경북 군위군(69.7%)에 이어 전국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다. 고흥 전체 취업자 3만9600명 가운데 2만6400명이 55세 이상이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고령자 취업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지역은 15곳에 달했다.

고흥(66.7%)에 이어 보성(65.8%), 신안(65.2%), 곡성(61.8%), 구례(61.3%), 강진·함평(각 60.6%), 담양(59.7%), 장흥(59.1%), 해남(57.2%), 장성(56.4%), 진도(56.2%), 영광

(53.5%), 화순(53.1%), 완도(51.5%) 등 순이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지역은 무려 10개 시군에 달했다. 특히 보성 청년 취업자는 900명으로, 전체 취업자 2만3100명의 3.9% 비중이 그쳤다. 이는 전국에서 경북 봉화군(3.1%)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치다.

광양(11.3%)과 목포(10.5%), 영암·순천(각 10%) 4개 시군만 '두 자릿수' 비율을 기록했다.

순천은 전국 77개 시지역 가운데 근무지 기준 취업자 비중이 거주지 기준보다 낮은 지역 2위에 들었다. 순천지역 근무지 기준 취업자 비중(61.9%)은 거주지 기준(61.6%)보다 9.7%포인트 낮았다. 주거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나주는 근무지 기준 취업자 비중이 13.4%포인트 높아 경기 포천시(23.8%포인트), 전북 김제시(17.2%포인트)에 이어 전국 시지역에서 3번째로 높았다. 군지역 가운데는 영암이 전국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한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38.30 (+48.09)
↑ 코스닥	1013.18 (+20.00)
↑ 금리(국고채 3년)	1.438 (+0.049)
↓ 환율(USD)	1165.60 (-8.10)

한편 광주 5개 구(區) 취업자는 73만860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처음으로 특별시·광역시 구 지역 통계가 포함됐다.

광주 취업자 수는 광산구(21만2800명), 북구(21만1100명), 서구(15만3800명), 남구(10만6900명), 동구(5만4000명) 순으로 많았다.

고용률은 광산구(60.2%), 서구(59.7%), 남구(57.3%), 동구(55.5%), 북구(54.8%) 순으로 높았다.

고령층 취업자 비중은 동구(36.1%), 남구(31.7%), 북구(30.3%), 서구(27.7%), 광산(23.1%)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비중은 광산(14.4%), 동구(14.3%), 서구(14.0%), 북구(13.8%), 남구(11.5%) 순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삼성 과감한 투자

2023년까지 국내 180조 등 240조 투자·4만명 직접 고용

삼성이 2023년까지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사업에 240조원을 신규로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는 등 과감한 투자에 나선다.

24일 삼성전자가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관계사는 이날 투자·고용과 상생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삼성은 향후 3년간 투자 규모를 240조원으로 확대하고, 18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했다. 첨단 혁신사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글로벌 산업구조 개편을 선도, 과감한 인수·합병(M&A)으로 시장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공고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투자 확대를 통해 세계 1위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바이오 사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할 계획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공장 4공장이 완공되면 생산 능력 62만 l로 세계 1위에 올라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시밀러를 담당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공격적인 투자로 CDMO 분야에서 5·6공장을 건설,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생산 허브로서의 절대 우위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AI)과 로봇, 슈퍼컴퓨터 등 미래 신기술 분야에서도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기존 제품의 한계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뛰어넘는 차세대 기술 리더십을 강화한다.

특히 삼성은 앞으로 3년간 4만명을 직접 채용할 계획이다. 통상적인 채용계획을 따르면 3년간 고용 규모는 약 3만명이지만, 1만명 가량의 고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3년간 국내 대규모 투자로 56만명의 고용·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도 삼성은 기대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관계사들은 국내 채용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신입 사원 공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회공헌·교육 사업도 강화해 대표적인 프로그램 '정년 소프트웨어(SW) 아카데미', '스타트업 지원 'C랩' 사업을 확대해 청년취업난 해소와 첨단 신성장 산업육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기초과학·원천 기술 R&D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 상생펀드 등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협력사 안정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삼성 관계자는 "미래를 열고 사회와 함께 나아가는 기업으로서, 다가올 3년의 변화에 대한 한국경제와 우리 사회가 당면할 과제들에 대한 삼성의 역할을 제시한 것"이라며 "투자와 고용, 상생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전반에 활력을 높여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무등산 수박 살리기 동참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오른쪽)이 지난 23일 광주 북구청에서 '무등산 수박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며 1000만원 상당 무등산 수박을 구매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산업진흥회 '국제광융합비즈니스페어' 개최

오늘~27일 서울서...100여개 업체·13개국 바이어 등 참여

한국광산업진흥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광융합산업 전문전시회 '2021 국제광융합비즈니스페어'를 개최한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IMID)와 함께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100여개 업체가 광융합조명·광통신·광부품·광에너지 등 광융합 제품을 168개 부스에서 선보인다. 또 13개국 120여명의 바이어가 참가해 온·오프라인 수출상담을 실시한다.

주요 참여기업으로 링크옵틱스는 피부개선을 위한 웨어러블, 플렉서블, 와이어리스 초소형 LED 패치 기술을 접목한 루미넬B를 전시하

고, 에이엘테크는 광섬유를 이용한 저전력 인공지능형 스피드 디스플레이를 선보인다.

테크엔은 최첨단 발광다이오드(LED) 실내조명 등을 전시하고 라이팩은 트랜스버용 광엔진, 비행거리측정(ToF) 센서용 광엔진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진흥회는 해외 바이어와 온·오프라인 수출상담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실시간 온라인 유튜브와 네이버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기업과 기업(B2B), 기업과 소비자간(B2C) 온라인 마케팅을 실시한다.

부대행사로는 한국광학회가 개최하는 광융합 산업 기술교류 발표회, 평면광도파로(PLC)·라이다 기술교류 세미나, K-Light 성과보고 및 발전방향 토론회 등이 열린다.

진흥회에서 주관하는 2021 국제광융합비즈니스페어는 광융합 지원기관의 후원으로 개최되며, 참여기업은 기본부스 임차·공사비 무상지원, 해외바이어 왕복 항공료 70%와 숙박 2일 전액 지원 등 초청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바이어와의 원활한 수출상담을 위한 전문통역도 함께 제공된다.

정철동 진흥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광융합 신기술 및 우수제품을 선보이고 해외 바이어와의 온·오프라인 수출상담도 개최해 국내 광융합 산업이 제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자산·공제 3,000억 달성 기념

경품 大 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정기예탁금

2.2% (2년)

2.1% (1년)

2020년 출자금

3.0% 배당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충장로5가 입구)

신축사옥 임대문의 환영

※임대업종: 한방병원, 병의원, 커피숍, 초밥전문점 등